

“불교는 미래의 과학이 탐구할 주제들을 그 안에 가지고 있다.” ‘불교에도 이런 과학적인 것이 있다’는 식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현대 과학과 불교의 만남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 스님)가 8일 강원도 문막에서 개최한 워크숍 ‘불교의 과학과 철학’이다. 10월경 같은 주제로 있을 학술 세미나를 위한 사전 토론회 성격의 편 이 자리가 관심을 끈 것은 “‘과학적’이란 수식어를 이용해 빛을 보려 한다”는 혐의를 거부한다는 데 있다.

**‘불교의 과학과 철학’**  
고려대장경연, 워크숍

이런 문제의식은 불교 ‘와’ 과학이 아닌 불교 ‘의’ 과학이란 워크숍 제목에도 들어 있다는 것이 이날 모임의 좌장 격인 소총립 교수(포항공대)의 설명이다. “‘불교의 과학’은 엄밀한 의미의 과학이 아니다. 과학의 발전에 의해 엄밀한 과학으로 흡수될 수 있는 ‘메타사이언스(Metascience)’이다. 메타사이언스는 현대 과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들을 제기하는 영역이고 첨단 과학이 미래의 과학으로 내다보는 문제의 영역이다. ‘불교의 과학’이란 말 속에는 불교는 미래의 과학을 종교적 진리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 들어 있다.”

최종덕(상지대, 자연철학) 이상하(계

# 불교 과학적 탐구 무궁무진



△메타사이언스의 불교의 만남을 통해 불교 사상의 새로운 해석을 모색해 보는 토론회가 고려대장경연구소 주최로 지난 8일 열렸다.

## 양자역학 - 연기론 상관성 가진 한 체계 상대성 이론에서 불교와 유사점 발견

명대, 과학철학) 양형진(고려대, 물리학) 교수 등 과학 전공자들이 발제를 맡고, 김성철(동국대) 허인섭(덕성여대) 현남규(제주대) 교수 등 불교학 전공자들이 토론자로 나선 것도 ‘과학을 향한 불교의 짝사랑’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다. 최종덕 교수는 현대과학의 첨단을 가

는 양자역학과 불교의 연기론이 유사함을 살펴봤다. “양자역학에서 대상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관찰(측정)을 통해 비로소 드러난다. 공간적으로 서로 떨어진 체계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상관성을 보이는 공동의 한 체계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때문에 불교

의 인드라망이나 화엄사상과 연결시키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어왔다.”

이상하 교수 역시 “현대물리학이 불교인들을 자극할 수 있는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운동 이전에 먼저 주어진 실체로서의 시간과 공간 개념을 없애버림으로써 사전에 전제된 혹은 본질적 개념을 거부하는 불교와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그렇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여전히 자연법칙이 불변하고 보편적이라는 지침서를 전제에 깔고 탄생한 이론이기 때문에 완전히 불교적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 역시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양자상태와 인드라망의 상태가 같다는 말을 통해 현대 양자역학의 이론이 이미 불교에 다 들어 있었고, 따라서 불교의 사상이 위대하다는 주장을 한다면 불교 스스로의 뜻을 좇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고 말했다.

소 교수는 “불교를 현대과학과 고전적 철학을 수용하는 종교로 이해하면서 불교적 세계관을 새롭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며 “‘불교의 과학과 철학’이란 주제는 이러한 해석을 시도해 보자는 의미를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막=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정병모 교수가 쓰는 불교 미술의 美

절(14)

### 자연이 숨쉬는 공간

산지기림의 특징은 그 절을 품은 자연에 있다. 어느 절 하면 어떤 자연이 연상될 만큼 절과 자연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월정사 하면 전나무숲이 떠오르고, 송광사하면 측백나무숲이 생각난다. 해인사는 숲이 아담하고 계곡의 물결이 힘차다. 특히 비 오는 날 계곡을 따라 구름에 쌓인 숲속을 지나면 장중함마저 느껴진다. 다른 어느 절보다 자연의 에너지가 충분한 절이 해인사이다. 자연이 절의 성격

를 위에서 아래로 통풍이 되도록 하였다. 어두운 날에도 장경각을 들여다보면 환할 정도로 창들이 큼직하게 뿔려 있는 것이다. 아울러 건물들 빙 둘러 물결을 내고 각 건물 간에도 연결하여 장마 때도 물이 머물지 않고 순식간에 빠져가 되어 있다. 자연과 더불어 숨쉬는 건물인 것이다.

장경각은 우리나라 건축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힘든 좌우로 길쭉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15칸으로 매우 긴 건물이지만 우진각 지붕으로 간결하면서도 단아한 외양을 띠고 있다. 이 건물의 장식은 현판과 수다라장의 문이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다 보면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 장경각(藏經閣), 보안당(普眼堂)의 줄을 잇는 현판들이 한눈에 잡힌다. 이들을 지나면



△국보 5호 해인사 장경판전. 바람길, 물길, 그리고 불길까지 자연스럽게 흐름을 살린 건물이다.

## 가야산은 삼재불입처 ... 팔만대장경 봉안 장경각은 바람·물결 흐름 자연스런 건물

야산이 전쟁 때마다 외적의 침입이 거의 없었던 삼재불입처(三災不入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불이다. <택리지>의 저자 이종환이 가야산을 화산(火山)이라고 보았듯이 해인사는 유난히 큰 화재가 많았던 곳이다. 마침 해인사에서 만난 현진 스님이 그 비결을 알려주었다. 해인사의 앞산인 매화산이 화기를 품고 있는 형국이라 단오 때 바다를 상징하는 소금단지라 매화산의 정상에 묻어 불기운을 다스리고, 해인사 경내 8군데 돌에 구멍을 파고 소금을 넣는 염주석(鹽柱石)을 설치한다고 한다.

삼재 불림도 없이 떠오르는 해 모양의 문을 마주하게 된다. 이것이 장경각의 얼굴이다.

이처럼 좁고 길다란 공간에서는 처마선이 중요한 프레임 역할을 한다. 어느 곳에서 보면 빠르게 치닫는 처마선의 흐름이 이 공간을 역동감 있게 이끌고 있다. 수평으로 전개되는 건물의 웅마루가 둥근 산마루처럼 느껴지는 착시현상도 좁은 공간에서 비롯된다. 여기에 넓게 뿔어 놓은 살장은 지붕의 기왓골, 배불림 기둥과 더불어 이 건물만의 독특한 표정을 만들고 있다.

자연의 문제를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서 풀어나간 지혜를 해인사는 보여주고 있다. 그 비밀은 바로 자연의 숨결을 원활하게 유지시켜주는 데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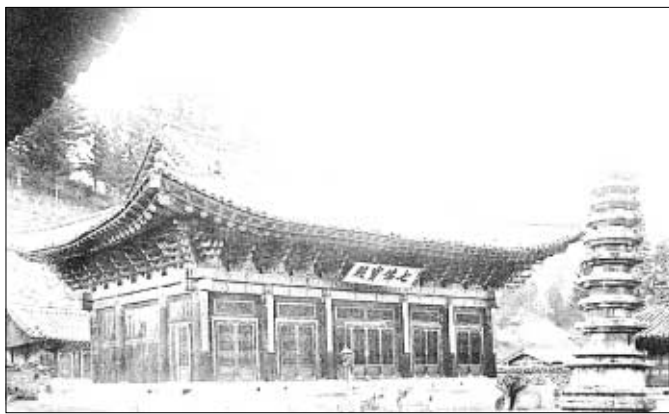
■경주대 문화재학부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탁연 스님)가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유리원판 필름 중 불교와 관련된 자료만을 한데 모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리원판 필름(원판 필름 앞뒤로 유리를 붙인 것) 촬영 사업은 조선총독부가 통치수단의 하나로 고고, 미술, 민속, 인류학, 건축 등 거의 모든 분야

에 걸쳐 실시한 사업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3만8천여 점,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1천3백여 점의 유리원판 필름이 남아 있다. 이밖에 조선사편찬회가 1927~1935년 일본 만주지방을 다니면서 수집 촬영한 유리원판 필름 4천802점이 국사편찬위원회에 보관돼 있으며 KBS 방송국에도 일부 전제하고 있다. 문화부가 최근 발간한 <유리원판 불교문화재 목록

## 일제시대 ‘유리원판 필름’ 목록 발간 조계종 문화부, 불교 사진 자료 수집



△중앙박물관 소장 유리원판 필름 중 해방전 월정사 모습.

석해 2차 목록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1, 2차 목록집을 합해 도록을 발간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탁연 스님은 “불상이나 탑, 건축 등 문화재뿐 아니라 한국전쟁 이전의 사찰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유·무형의 불교문화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들이 다”며 “특히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사찰을 복원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 유리원판)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유리원판 필름 중 불교와 관련된 사진자료 7천863점의 목록을 정리한 것으로, 3년 계획으로 진행될 이 사업의 첫 번째 결실이다. 이어 내년에는 서울대박물관과 국사편찬위원회, KBS 방송국에 남아있는 7천여 점의 유리원판 필름을 분

## 보덕 스님 고달산 이주는 고구려 연개소문 탄압때문

김주성 교수 주장

열반종을 개창한 보덕이 고구려 연개소문의 탄압을 피해 백제 땅인 전주 고달산으로 이주한 시기는 650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교대 김주성 교수는 최근 발간된 한국사 계간 학술지 <한국사연구 121집>(한국사연구회)에 기고한 논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덕은 최치원과 김부식이 전기기를 쓸 정도로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쳤지만 일연의 <삼국유사>와 <동국이상국집> ‘남행월일기’ ‘경북사시’ 등에 단편적인 기록만 전할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고달산 이주시기에 대해 최치원은 백제멸망(660년) 후인 667년으로, 김부식은 멸망전인 650년으로 견해가 갈린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찬자 모두 최치원의 <보덕전>을 읽어보았을 텐데도 보덕의 이주시점을 650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보덕의 고달산 이주시기는 650년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 불자의 공자·신행의 기쁨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계제·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종렬	051)632-0064 / 011-219-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문철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지사	광주일원	주용직	062)375-9986 / 016-602-7544
강릉지사	강릉일원	전유진	033)643-5599 / 018-236-5589
전북지사	전북일원	조기식	063)255-2274 / 011-9644-4579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해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영애	054)634-3429 / 011-9373-3778
충북지사	청주일원	일봉스님	043)258-3282 / 011-459-3282
대전지사	대전일원	류재희	042)534-6523 / 017-433-6523
경남 서부지사	마산 / 창원 / 김해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제천지국	제천 / 단양	청산스님	043)644-4366 / 011-485-4080

# 육법등 (六法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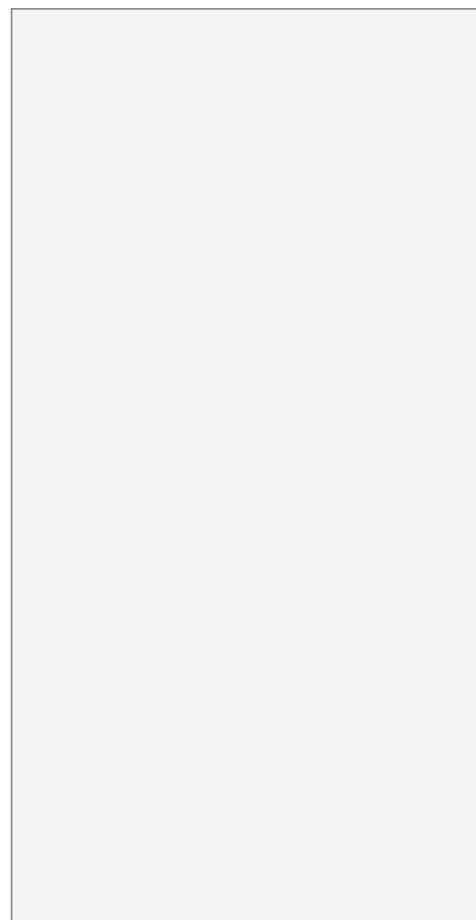
의정등록 제 2002-33243호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시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 5)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 6)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개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7)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8)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응으로 활용가능
- 9)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 10)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화 : 031)541-1417 / 팩스 : 031)541-1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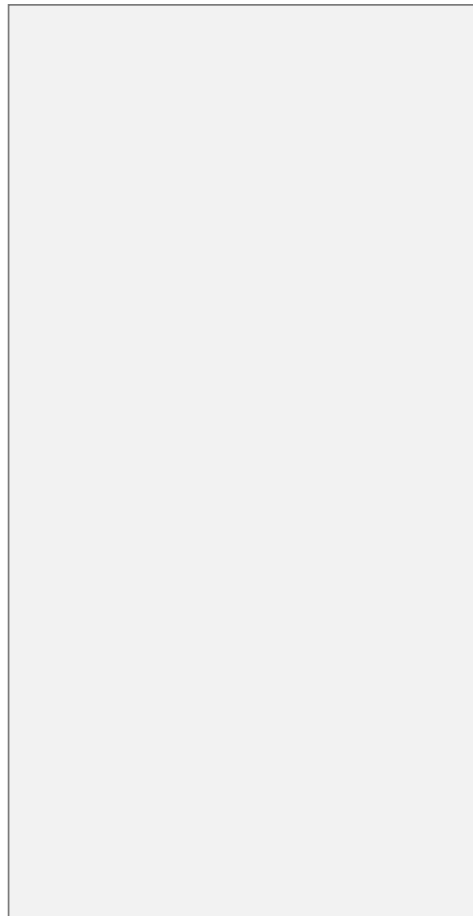


## 전국 지사 안내

지 사 명	활 동 지 역	지 사 장 명	주 소 및 연 락 처
-------	---------	---------	-------------

서명등록지 2002-0204102





##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게재·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계약·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주)동원전기

충남 및 대리점 모집